

문화



캐나다 출신 건축가 미리암 호(오른쪽)씨가 9일 가이아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예술세계 홍콩에 알린다

이이남·고근호 씨 등 지역 젊은작가 '아시아 호텔아트페어' 참가 신작 발표

지역 작가들이 홍콩 나들이에 나선다. 나인갤러리는 오는 26~28일까지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2010 아시아 호텔아트페어(AHAF)'에 참가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이이남, 고근호, 신양호, 박태후, 정은화, 홍원철, 김숙빈씨 등이 참가해 신작을 발표한다.

이이남씨는 '모나리자' '목죽도' 등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정적이었던 명화 속 인물이 움직이거나 화면에 나비가 날고, 눈이 내리는 등 움직임이 강조된 이색 작품이다.

또 고근호씨는 체 계바라와 어린왕자를 유쾌하게 빛은 조각을 출품했다. 단추·손목시계·병뚜껑·열쇠 등이 감춰져 있어 작품을 함참 들여다 보고 있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는 재미가 느껴진다.

이 밖에 박태후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전깃줄 위에



이이남 작 '산-해돋이 인상'

참새가 졸지어 앉아있는 '참새'연작으로 정갈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절정에 달한 백일홍의 붉은 꽃잎을 앙상한 가지와 대비시켜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 낸 '자연속으로' 연작도 함께 출품했다. 또 신양호씨는 갈치와 병치 등 생선 조각품을 선보이고, 김숙빈씨는 장수풍뎡이 등 곤충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을 전시한다.

한편 아트페어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갤러리 70여곳이 참여해 1천8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구촌 문화 사랑방 볼거리 많네

광주국제교류센터 '가이아 갤러리' 잇단 이색 전시 다양한 문화 소통으로 내·외국인 마음의 벽 허물어

"광주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60~70년대 지어진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국적은 달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억입니다."

9일 오전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우)가 운영 중인 광주시 동구 급남로 전일빌딩 5층 Gaia(가이아) 갤러리.

이곳에서 전시를 연 캐나다 출신 건축가 미리암 호(여·26·Miriam Ho)씨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머무름'(Dwelling)을 주제로 오는 3월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미국 출신 시각미술가 타마라 벨덴(Tamara Belden)씨와 지역 사진작가 김사라, 김예지씨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 도심 풍경을 주제로 광주 작가와 광주 거주 외국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미리암 호는 이번 전시회에 지난해 7월부터 양

동시장 등 낡은 주택가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네의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과 이를 건축학적으로 분석한 도면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에 거주한지 1년째인 미리암 호씨는 "광주에서 살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도심 풍경은 지역민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날 관람객들은 "현지인도 미처 모르는 곳을 어떻게 찾아냈나?" 등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드러냈다.

가이아갤러리가 외국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작품을 소개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지역에 알리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광주의 모습 등 이색 전시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가이아 갤러리는 예술작품 전시를 통한 문화교

류를 위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으로, 모든 지구인이 이곳에서 만나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동안 뉴질랜드 사진작가 앨런 그레이(Allen Gray)씨,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시각미술가 탐린 영(Tamlyn Young)씨 등 외국인 작가들이 참여해 4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또 오는 3월 중순에는 영국 사진작가 사이몬 본드(Simon Bond)의 개인전을 여는 등 매달 한 차례씩 다양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도 3월말 외국인과 광주 시민 12명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는 'Life in Gwangju project'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이아 갤러리 김지현 간사는 "외국인들은 이곳을 광주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Community Gallery)이라고 부른다"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누구보다 좋아하고, 시민들도 낯선 이방인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273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극단예린 20~21 씨디아트홀 '귀족수업'

사람들의 허영심 해학적으로 풀어

인간의 기본 속성 중 하나인 허영심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유쾌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예린은 20~21일 오후 4시·7시 씨디아트홀에서 '귀족수업'을 공연한다. 프랑스 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작인 '귀족수업'은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주인공이 귀족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속아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안은 많지만 배운 게 없고 신분이 낮아 속았음을 하던 주르당은 귀족이



되기 위해 음악·무용·철학 선생을 가정교사로 초빙, 귀족적 기예와 학식을 배우려 애쓰지만 돈만 낭비한다. 극단 대표인 윤여송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동원·임민경·소병주·정다경씨 등이 출연한다.

지난 2002년 창단된 극단 예린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인', '벨트 카메라', '돈내지 맙시다', '택배' 등을 공연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34-2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뮤지컬 '화려한 휴가' 주인공 찾습니다

13일 서류마감·16일 오디션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 오디션이 열린다.

'화려한 휴가' 제작사인 메이엔 터테인먼트와 쇼엔라이프는 '화려한 휴가'에 등장하는 주인공 강민우 등 전 배역에 대한 오디션을 진행한다.

서류 마감은 오는 13일까지며

릴 예정이다. 800만명을 동원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블루 사이공'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경숙 작가와 권호성 연출이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음악은 '청연' 등으로 대종상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미하엘 슈타우더가, 안무는 광주 출신 이지우 씨가 맡았다. 문의 02-743-64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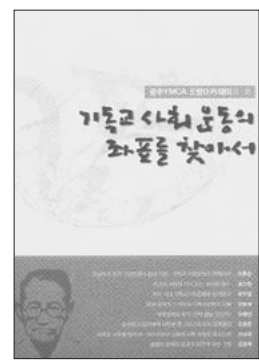
광주 YMCA '오방아카데미 강연' 책으로 엮었다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 YMCA가 주관해온 '오방아카데미' 강연 내용을 엮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좌표'를 찾아서-광주 YMCA 오방아카데미 II,III '가' 출간됐다.

이번 책에는 지난해 '우리시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좌표를 찾아서'와 '생명의 경제와 성서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2, 3차 강연 8개 강좌 내용과 질의응답을 담았다.

또 부록으로 오방(五放) 최홍종 목사의 연보와 관련 자료 사진 등을 실었다.

(사)오방기념사업회 김국웅 이사장은 "지난해 오방아카데미는 지구온난화와 세계경제위기 등 중점적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운동의 시대적 환의와 사상적 근거를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이 책을 통해 시대적 성찰과 지구를 살리고, 인간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생명과 평화의 영성



과 지혜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YMCA는 광주YMCA 창설자이자 나환자와 빈민 등 민생구휼에 앞장섰던 최홍종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2008년부터 '오방아카데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문의 062-955-69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영화에 빠지다

메가박스

Table with 9 rows and 2 columns: Row, Title, Price. 1관 의형제 (154), 2관 의형제 (154), 3관 의형제 (154), 4관 울프맨 (184), 5관 아바타 (124), 6관 발렌타인데이 (154), 7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8관 하모니 (124), 9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4)

• 호날두 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권말고래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



영희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with 10 rows and 2 columns: Row, Title, Price. 1관 의형제 (154), 2관 발렌타인데이 (154), 3관 의형제 (154), 4관 의형제 (154), 5관 아바타 (124), 6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7관 하모니 (124), 8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4), 9관 울프맨 (184), 10관 하모니 (124)

힐트시탈 영화사람 • 메: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 메: 1588-7941



1588-7941 상무병원역 행영-(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Table with 10 rows and 2 columns: Row, Title, Price. 1관 하늘에서 용식이내린다면 (124), 2관 주유소 습격사건2 (154), 3관 의형제 (154), 4관 발렌타인데이 (154), 5관 의형제 (154), 6관 헤이트 발렌타인데이 (124), 7관 하모니 (124), 8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9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10관 아바타 (124)

5000대 넘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카드 할인 혜택 • 이미 승용차 281-5757 • 이미 볼링장 282-0925 • 이미 골프장 281-5000



고려시탈 고객센터 • www.hamichinema.com / 1588-9120 전미무선 하미스포텍 ☎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with 7 rows and 2 columns: Row, Title, Price. 1관 하모니 (124), 2관 울프맨 (184), 3관 발렌타인데이 (154), 4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5관 전우치 (124), 6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4), 7관 의형제 (15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m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with 6 rows and 2 columns: Row, Title, Price. 1관 의형제 (154), 2관 울프맨 (184), 3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4), 4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4), 5관 발렌타인데이 (154), 6관 아바타 (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변) - 단, 입장권 구매 고래에 한함



새로운 기법 • www.primuscinema.com / www.jelcinema.co.kr • 총상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